

서태평양지역 보건위기 협력, ‘대응’을 넘어 ‘대비’로 한 단계 더

- 질병관리청·WHO 서태평양지역사무처 「GOARN 지역 파트너 회의」 국내 최초 개최
- 15개국 21개 기관 참여, 긴급대응 인력 파견 경험을 공유하고 지역 내 대비 체계 논의
- 대한민국 정부와 민간, GOARN 통한 국제 보건위기 대응인력 파견 및 지역 내 협력 적극 참여

【국정 84-5】감염병위기대응체계 개선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역사무처(WPRO)와 9월 9일(수)부터 10일(목)까지 서울에서 「국제유행경보대응네트워크(Global Outbreak Alert and Response Network, 이하 GOARN) 지역 파트너 회의」를 개최한다.

<국제유행경보대응네트워크(Global Outbreak Alert and Response Network, GOARN) 개요>

- ▶(정의) 감염병 유행이나 공중보건위기가 발생했을 때 필요한 전문인력과 기술을 신속하게 연결하기 위해 WHO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국제 협력 네트워크 ('00년 출범)
- ▶(역할) GOARN을 통해 각국과 기관은 보건위기 발생 시 국경을 넘어 전문인력을 파견하고 역학조사, 감시, 임상사례 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필요한 기술적 지원 제공
 - * ('26년 대응) 콩고민주공화국·우간다 에볼라바이러스병(분디부교형), 베트남 홍역, 피지 뎅기열 유행 등
- ▶(협력기관) 서태평양지역은 19개국 94개 협력기관, 대한민국은 질병관리청, 국립중앙의료원,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이종욱글로벌의학센터 등 3개 기관으로 구성

이는 한국에서 처음 개최되는 GOARN 서태평양지역 파트너 회의로, 국제 공중보건위기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위기 발생 전부터 필요한 인력과 전문성을 준비·연결하는 지역 차원의 대비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회의에는 WHO 본부와 서태평양지역사무처를 비롯해 질병관리청, 국립중앙의료원, 서울대학교 이종욱글로벌의학센터 등 15개국 21개 협력기관에서 약 100명의 감염병 및 공중보건위기 대응 전문가가 참여한다.

주요 논의 내용은 ▲GOARN의 미래 발전 방향, ▲2026년 국제 보건위기 대응인력 파견 경험, ▲지역 보건위기 대응인력 역량강화 이니셔티브, ▲보건 위기 대응인력 강화 방안, ▲서태평양지역 대비태세 강화를 위한 전략적 협력 방안 등이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위기 발생 이후의 신속한 대응뿐만 아니라 평상 시부터 대응인력을 양성하고 국가와 기관 간 전문성과 경험을 연결하는 등 지역의 대비태세를 체계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한다.

이를 위해 위기소통, 지역사회 참여 등 지역 내에서 역량 강화가 필요한 분야를 중심으로 현황 및 격차를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위기 발생 시 필요한 전문인력을 신속하게 연결하고 파견할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를 계기로 GOARN은 감염병 등 국제위기 발생 시 전문인력을 신속하게 연결하는 ‘대응(Response)’ 중심의 네트워크에서, 평상시부터 인력과 전문성을 함께 준비하고 연결하는 ‘대비(Readiness)’ 중심의 지역 협력 네트워크로 발전해 나갈 계획이다.

WHO 서태평양지역의 지나 사만(Gina Samaan) 비상대응국장은“GOARN은 각국과 기관이 보유한 전문성과 역량을 지역의 공동 대응역량으로 연결하는 중요한 협력 플랫폼으로, 서태평양지역 내 서로의 전문성을 공유하고 강점을 결합할 때 강력한 보건협력 파트너십을 구축해 나갈수 있다”고 강조했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앞으로도 질병관리청은 국립중앙의료원,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이종욱글로벌의학센터 등 국내 GOARN 협력기관이 긴밀히 협력하여 국제 보건위기 대응인력의 양성과 파견, 기술지원에 적극 참여하겠다”며, “국제 대응 과정에서 축적되는 경험과 전문성을 국내 보건위기 대응 역량 강화로 연결하고, 서태평양지역의 보건위기 대비 태세를 함께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 <붙임> 1. 국제유행경보대응네트워크(GOARN) 개요
2. GOARN 지역 파트너 회의 일정표
3. 행사사진

담당 부서 <총괄>	질병관리청 기획조정관 국제협력담당관	책임자	과 장	이지아 (043-719-7750)
		담당자	사무관	박은정 (043-719-7751)
			연구사	오지영 (043-719-7769)
담당 부서 <협조>	국립중앙의료원 중앙감염병병원설립추진단 감염병병원설립기획팀	책임자	팀 장	김가연 (02-6288-1463)
		담당자	연구원	김빛나라 (02-6288-1455)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이종욱글로벌의학센터	책임자	부센터장	송진수 (02-740-7337)
		담당자	연구원	김은실 (02-740-7367)



□ GOARN 개요

- **(개요)** 전 세계 공중보건 비상상황 대응을 위해 WHO 주도하에 출범('00.4.)한 국제기술 네트워크로 감염병 발생 시 신속한 전문가 현장 파견 등 다학제적 기술지원 및 공조활동 수행
 - * 국제유행경보대응네트워크, Global Outbreak Alert and Response Network
- 우리청은 '23년부터 GOARN 담당자와 실무회의를 개시, 질병청-WPRO 간 GOARN 활동 참여 및 협력 본격화
- **(협력기관)** 각국 보건당국·연구기관·대학 등 약 390개 기관 참여
 - 서태평양지역은 총 19개 국가 94개 협력기관 지정·운영 중('26.8월 기준)
 - * 한국, 호주, 일본, 베트남, 싱가포르, 중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 * 대학·연구기관, 정부기관(Ministry급), 공공기관(Public Health Agency급), 의료기관 포함
 - 한국은 질병청 포함 총 3개 협력기관 활동 중(국립중앙의료원, 서울대 의과대학 이종욱글로벌의학센터)

□ 주요 내용

- **(활동영역)** ①경보·위험평가(Alert and Risk Assessments), ②훈련·역량개발(Capacity Building and Training), ③신속대응역량(Rapid Response Capacities), ④운영연구(Operational Research)
- **(파견현황)** '26년 콩고민주공화국·우간다 에볼라바이러스병(분디부교형) 대응 베트남 홍역, 피지 Dengue 열 유행 등(서태평양지역 대응 '26년 총 7건*)
 - * 베트남 홍역 유행, 피지 Dengue 열 유행, 바누아투 홍역 유행, 파푸아뉴기니 열대성 사이클론, 나우루 공중보건검사 관련 파견
- **(파견분야)** 10개 분야 중 역학·감시 분야 수요 多('24년 WPRO내 역학 204건)
 - * 그 외 진단검사, 공조, 환자관리, 감염예방 및 관리, 의료자원, 자료관리, 위기소통 등

□ **1일차 [9.9. (수)]**

시간	내용
개회	
09:00-09:25	개회사
09:25-09:30	회의 목표 및 일정 소개
세션1 미래를 위한 GOARN 방향 설정	
09:30-09:50	위기를 넘어 회복력 있는 미래로: 한국의 보건위기 대응체계 강화
09:50-10:00	아시아태평양 보건안보행동 프레임워크(APHSAF)
10:00-10:10	2026년 이후 GOARN 전략
10:10-10:20	GOARN을 통한 글로벌보건위기대응인력 협력체계(Global Health Emergency Corps, GHEC) 발전
10:20-10:30	GHEC - 글로벌 보건위기 대응인력 준비태세
10:30-10:40	질의응답
10:40-11:15	단체사진 촬영
세션2 2026년 긴급대응 인력 파견	
11:15-11:30	파푸아뉴기니 열대성 사이클론 마일라(Maila) 대응
11:30-11:45	바누아투의 홍역 대비
11:45-12:00	나우루의 국가실험실 평가
12:00-12:15	태평양 도서국가의 Dengue 열 유행
12:15-12:30	토론
12:30-13:30	중식
세션3 지역 보건위기 대응인력 역량강화 이니셔티브	
13:30-13:45	보건위기 대응인력 강화 및 개발
13:45-14:00	인도-태평양 국가의 역량 강화를 위한 공중보건 비상대응 운영(PHOENIX)
14:00-14:15	지역역학네트워크(REPiNET), 태평양 공중보건 감시 네트워크(PPHSN)
14:15-14:30	긴급대응팀 강화
14:30-15:00	토론
세션4 네트워킹 및 문화행사	
15:00-15:15	프로그램 소개 및 환영
15:15-16:55	문화공연·체험 및 네트워킹
16:55-17:00	마무리

□ 2일차 [9.10. [목]]

시간	내용
09:30-09:40	시작
세션5 지역 보건위기 대응인력 강화	
09:40-09:55	WHO 서태평양지역 GOARN 파트너 소개
09:55-10:10	공중보건 위기가 보건의료체계 개혁과 보건위기 대응인력 역량개발에 미치는 영향
10:10-10:30	WHO 서태평양지역 보건위기 대응인력 정책브리프 및 이행
10:25-10:45	토론
10:45-11:00	휴식
세션6 지역 대비태세를 강화하는 전략그룹	
11:00-11:15	WHO 협력센터(CC)를 통한 GOARN 강화: RKI의 사례
11:15-11:30	GOARN 진단분야 긴급대응역량 전략그룹(GOARN DiSC)
11:30-11:45	아시아-태평양지역 이동형 실험실 배치: 운영모델, 촉진요인 및 이행과제에 대한 주제범위 문헌고찰
11:45-12:05	협력기관 간 파트너십: 지역 대비태세 강화를 위한 실질적 협력경로 구축
12:05-12:20	BRIDGE
12:20-12:30	토론
12:30-13:30	중식
세션7 대응에서 대비까지	
13:30-14:45	패널토론 대응에서 대비로 - 서태평양지역의 미래대비 GOARN 네트워크 구축
14:45-15:15	파트너십의 실행
폐회	
15:15-15:30	폐회사



[질병관리청 차장 개회사]



[GOARN 지역회의 참석자 사진]



[GOARN 회의 문화체험 및 네트워킹]



[질병관리청-WHO 서태평양지역사무처 양자면담]